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김정진 (Jeong-Jin Kim)**

하규영 (Gyu-Young Ha)(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urch leader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rough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among church members. Therefore, we will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For this purpose, the coaching leadership of church leaders, spirituality,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were measured among 400 Christia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aching leadership of church lead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In addition,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were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on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overed the path through which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pirituality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church members' intention to continue their faith life, and that the direction of change in church leaders' leadership should be set to coaching leadership.

Key words: faith life, intention to continue, satisfaction, spirituality, coaching leadership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27일 게재확정.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심리학과 박사수료(Kwangwoo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mosesjin@hanmail.net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조교수(Kwangwoo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stella1221@kw.ac.kr

I. 서론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현재 종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종교인 37%, 무종교인 63%로 나타났으며 1998년 조사에서는 종교인 53%, 무종교인 47%로 무종교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종교인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 250만 명으로 12.1% 줄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 19’이라는 전염성 질병은 교인 감소 현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19 이전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보면 ‘신앙수준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020년 26%에서 2022년 38% 증가하였고, ‘신앙수준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020년 18%에서 2022년 13%로 감소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a). 이는 시간이 갈수록 종교활동의 참여자가 줄어들고, 신앙수준이 약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는 그런 상황을 더 가속시켰음을 보여준다. 개신교의 각 교단들은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인 감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신앙생활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 임명성(2021)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김영학(2022)은 인간은 종교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완성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의도를 높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참여할 의지와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며, 참여를 결심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2022b)의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에서 ‘10년 후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4%는 교회 이탈 의향을 보였고,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 이탈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5%가 교회 이탈 의향을 보였으며 ‘신앙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즘에도 있다’는 응답이 40%,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는 응답이 40%였다. 3040세대가 신앙생활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감소시키고 교인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리더십이다. 개신교에 속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국 교회의 교인 수 감소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다(권혁남, 2012; 조성호, 2012).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향이 있는 원인 중 목회자 요인을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목회자의 설교’,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 ‘상처가 되는 말’ 등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은 바로 코칭리더십이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수평적 리더십에 코칭의 개념을 접목한 코칭리더십의 활용을 주장하였는데, 코칭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의 코칭리더십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회 이탈 현상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하여 지속의도를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영성이다. 이정아(2014)는 일터 영성이 높아지면 직무열의 또한 높아지며, 반대로 이직의도는 낮아진다고 했다. 김문선과 황혜정(2023)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이 군생활 적응과 응집성을 좋게 한다고 했다. 안재균(2022)의 연구에서 영성의 하위요인 용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자살사고,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의 낮고, 회복탄력성과 소속감 지향점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군 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만족감이 높고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사이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신앙생활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한국교회가 처한 교인 감소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앙생활 지속의도

기독교인에게 신앙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Daniel(1994)은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대상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진우(2018)는 신앙생활 경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교육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신앙생활이란 절대적인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맺기이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교육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인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이를 구체적인 현장 즉 교회, 가정, 직장, 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높이는 방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연구 분야와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선영(2017)은 지속성은 목적성을 띠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속의도라고 했다.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교회 안에 지속의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혜정과 임희수(2022)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많지만, 오히려 신앙의 회복과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음을 밝혀 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적, 외적 동기에 자극을 받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2.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교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가 존재한다.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목회자, 그 목회자를 보좌하며 교회의 또 하나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 권사, 집사, 소그룹 담당자, 교회학교 교사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요청되는 리더십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를 요구한다. 임은정과 탁진국(2023)은 현대 조직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었으며, 존중과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수평적 리더십인 코칭리더십이 주목받게 되었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코칭리더십을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다. 코칭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개인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관계를 향상시켜 주며, 잠재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해 준다(조은현·탁진국 2011 ; 남정훈 2016 ; 도미향 외, 2022). 송영진(2012)은 코칭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코칭리더십이 성장, 성과달성, 향상,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코칭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한 교회의 반응 방법이다. 권위주의를 벗어나고 수직관계를 벗어나 지도자와 교인이 평등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파트너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다.

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와의 관계

기업에서 리더십의 유형은 직원들의 근무 지속과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건용(2019)은 공유리더십과 지속근무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이 수평적인 리더십 형태로 조직의 비전, 계획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등 하나 된 조직을 만들어 팀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성원의 지속근무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남규(2019)는 변혁적리더십과 지속학습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속학습활동의 선행요인을 변혁적리더십으로 보았으며, 이는 변혁적 리더가 각 구성원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줄 때 구성원은 이에 보답하고자 역할 내·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거나 기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피드백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발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활동에 대한 지속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김사엽(2016)의 변혁적리더십과 운동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개별적 배려가 운동지속의도의 하위요인인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유진과 이숙경(2019)은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의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지도자의 유형 중 변혁적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이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 박철용과 송영수(2023)는 코칭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경력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경력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지속 근무, 지속 학습, 운동 지속, 경력 지속 등의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리더십이 근무, 학습, 운동 등의 지속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변혁적리더십은 개인의 잠재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코칭리더십과 관련된 척도 개발을 통해서 코칭리더십의 하위 요인을 존중, 목표제시와 피드백, 관점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 4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코칭 리더십의 존중은 코치와 고객의 수평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코칭리더십이 공유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과 공통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이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코칭리더십 또한 지속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와 같은 추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영성

현대 사회를 영성의 시대라고 하며 영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장미애(2022)는 영성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자연 및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초월성’, 신체와 정신 및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고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의 ‘통합적 에너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내적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종교를 뛰어 넘어 점점 확대되어지는 동시에 인간 내면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유해룡(1999)은 영성이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영’이라는 실재를 통한 자아 초월적인 경험을 현재적인 삶으로 실현하고 통합하려는 그 과정과 실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 경험되고 인식되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 된다고 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막연하고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경험하며,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영성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요인에 대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 출석 이유가 개인의 영성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미애(2022)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고 했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은 교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욕구이며,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5.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지도자가 교인들을 권위적이고 수직적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존중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과 관점을 변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변화와 성장, 그리고 발전을 이끌어 내는 수평적 리더십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영적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더 많은 영적 실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한나(2013)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과 영성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리더십과 영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며 영성이 높을수록 리더십 또한 높아진다고 했다. 정현우, 서정기, 류태모(2014)는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부하가 지각하는 윤리적 리더십이 내면세계와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일터 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교(2023)는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일터 영성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김찬목(2014)은 목사의 리더십 요인 중 역량과 설교내용이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영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조성호(2012)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가 영성이며, 교회의 리더는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 긍정적인 영적 경험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영적 경험이 줄어들며, 긍정적인 영적지지를 받고 영적 실천을 많이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문선과 황혜정(2023)은 병사의 정서지능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영성지능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영성지능이 높은 병사가 군생활 적응력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아(2015)는 영성리더십과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일터 영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일터 영성이 이직의도를 낮추게 하고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성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고,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영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영성이 매개할 것이다.

6. 신앙생활 만족

만족이란 개인의 욕구와 작업 환경의 요구조건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과 작업환경의 조화에 대한 개인의 내적 지표이다(김춘경 외, 2016). 이 정의를 통해 보면 만족은 개인적인 차원

에서 느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과 관계에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종교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전성표(2011)는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준성, 박은미, 정태연(2012)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적인 믿음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며 잘 대처하며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종교는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내면을 단단하게 하여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신앙생활만족에 대해 이종석과 정득(2018)은 종교가 주는 두 차원의 만족에 대해 설명하며 내재적 종교성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주어 만족감을 가지게 하며, 인간의 보편적 문화 속에서 경험되는 외재적 종교성은 사람들이 종교적 실체에 많은 참여를 하는 활동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한다고 했다. 김정두(2017)는 교회생활만족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게 대해 느끼는 교육, 예배, 설교, 소통에 대한 만족감 및 충족감 그리고 자족감이며, 교인이 느끼는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신앙생활만족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의 경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 또는 참여자들의 정서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리더십이 정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조직에 기능, 변화, 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창준과 윤정구(2007)는 정서와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통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기쁨/만족>, <흥미/열정>의 두 가지 집단 정서를 유발시키고, 감정적 리더십도 <기쁨/만족>의 집단 정서를 유발하는 원천이 된다고 했다. 리더십은 조직의 정서조절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구성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리더십은 조직 또는 참여자의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 이은기(2008)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정하(2007)는 목회를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 리더로 보고 목회자 리더십이 성도들의 조직 몰입과 헌신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조직의 리더십의 특성에 따라 조직 또는 참여자의 만족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도연(2022)은 필라테스 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만족이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신체적 만족요인과 심리적 만족요인이 운동 지속의도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고 했다. 김진경(2012)은 필라테스 참여 여성의 여가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이 지속의도를 높이는 선행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리더십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만족은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앙생활만족이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신앙생활만족이 매개할 것이다.

8.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다중매개효과

오랜 시간동안 흘러온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게 했다. 다시 영성에 집중하게 하고 영성적인 활동을 실천하게 하였다. 그런 지도자들의 역할과 교인들의 영성적인 활동이 교회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음은 교회사를 통해 증명 되었다. 조성호(2012)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가 영성이며, 교회의 리더는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2023)는 개인주의를 넘어 ‘나노사회’라 불리는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융합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영성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성은 인간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에 만족을 준다. 한석빈과 탁진국(2023)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이 직무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했다. 이종석과 정득(2018)은 외재적 종교성이 교회만족도에 미친다고 했다. 내재적인 종교성향이 직무와 결혼 만족도, 행복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내재적 성향은 외재적 종교성을 통해 경험된다. 권영길과 고순자(2012)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앙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정진오, 변상해, 김종수(2009)는 중년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이 모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영성과 그에 따른 신앙활동이 직무, 결혼, 가정생활, 부부생활등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만족이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 자신을 건강하게

하여 건강의 만족을 얻고, 그 운동의 자신의 체형을 바꾸어 날씬해진 몸매에 만족을 얻게 된다면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필라테스 참여자가 느끼는 신체적 만족, 심리적 만족, 여가 만족은 참여자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김진경, 2012 ; 김도연, 2022). 운동에 대한 만족과 지속의도 선행 연구들은 모두 만족이 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영성은 만족에 영향을 주며, 만족은 지속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사이의 관계를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다중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가설4.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다중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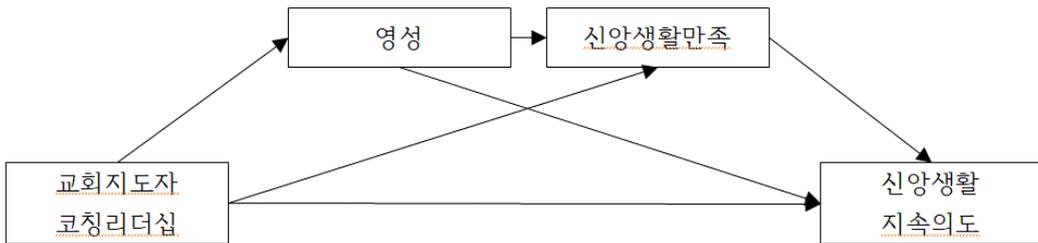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 리서치 기관에 등록된 회원들 가운데 설문참여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총 400명의 회원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400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남자 180명(45%), 여자 220명(55%)으로 남녀 비율은 10%의 차이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대는 만 20-29세 36명(9%), 만 30-39세 125명(31.3%), 만 40-49세 109명(27.3%), 만 50-59세 89명(22.3%), 만 60-69세 41명(10.3%)으로 만 30-49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종교적 특성으로 개신교 259명(64.8%), 천주교 141명(35.2%)로 개신교인의 숫자가 더 많았으며, 신앙생활 년수는 1년미만 14명(3.5%), 1년이상 2년 미만 9명(2.3%), 2년이상 5년 미만 23명(5.8%), 5년이상 10년 미만 44명(11%), 10년이상 310명(77.5%)이었다. 세례(영세)를 받는 사람은 357명(89.3%), 받지 않은 사람이 43명(10.8%)으로 나타났으며, 영적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158명(39.5%), 약간 있는 사람 198명(49.5%), 자주 있는 사람은 44명(11%)이었다.

2. 측정도구

(1) 신앙생활 지속의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양명환(2004)이 Courneya와 McAuley(1993), Wilson과 Rodgers(2004)의 행동의도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한 척도를 신앙생활 지속의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일반적으로 .70 이상 나왔다면 분석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2) 교회 지도자 코칭 리더십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코칭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조은현과 탁진국(2011)이 개발한 코칭리더십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의 리더십 대상은 상사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목회자, 소그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변형하였다. 코칭리더십은 총 4개의 요인,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영성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Fetzer/NIA(1999)에서 개발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을 윤혜영과 김근향(2015)이 타당화한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영성척도는 총 6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형식은 4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4요인은 Likert 8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실천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4) 신앙생활 만족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hattacharjee(2001)의 문항을 선택하고 번역한 장위(2020)의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버전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각의 변인들의 척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SPSS PROCESS Macro v4.2 Model 6)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 변인 기술 통계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1.신앙생활 지속의도	3.34	1.25
2.신앙생활 만족	4.85	1.06
3.영성	3.31	.78
4.코칭리더십	3.45	.70

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속 변인인 신앙생활 지속의도는 신앙생활만족($r = .58, p < 0.01$), 영성($r = .71, p < 0.01$) 코칭리더십($r = .55, p < 0.01$)과 유의한 상

관을 보였으며, 코칭리더십은 영성($r=.52, p<0.01$), 신앙생활만족($r=.57, p<0.01$)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영성과 신앙생활만족($r=.40, p<0.01$)의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신앙생활 지속의도	-			
2.신앙생활 만족	.58**	-		
3.영성	.71**	.40**	-	
4.코칭리더십	.55**	.57**	.52**	-

** $p<0.01$

3.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이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4.2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Bootstrapping을 실시하기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 신뢰구간 95%로 설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8). 표 3에 결과를 제시하고,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영성(coeff=.58, $p<0.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영성은 신앙생활만족(coeff=.24,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앙생활만족은 신앙생활지속의도(coeff=.26, $p<0.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인들의 영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인들의 영성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수록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회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영성, 신앙생활만족,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경로계수

경로	coeff	se	t	p	LLCI	ULCI
코칭리더십 → 영성	.58	.05	12.133***	.000	.48	.67
코칭리더십 → 신앙생활만족	.88	.08	10.345***	.000	.71	1.04
영성 → 신앙생활만족	.24	.08	3.180**	.001	.09	.39
코칭리더십 → 신앙생활 지속의도	.14	.06	2.306*	.022	.02	.26
영성 → 신앙생활 지속의도	.72	.05	14.471***	.000	.62	.82
신앙생활만족 → 신앙생활 지속의도	.26	.03	8.075***	.000	.20	.33

*** $p<0.001$ ** $p<0.01$ * $p<0.05$

다음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and Bolger, 2002).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교회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

효과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82	.06	.71	.94
직접효과	.14	.06	.02	.26
간접효과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코칭리더십-영성-신앙생활지속의도	.42	.05	.33	.52
코칭리더십-신앙생활만족-신앙생활지속의도	.23	.05	.14	.33
코칭리더십-영성-신앙생활만족-신앙생활지속의도	.04	.01	.01	.07

분석결과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매개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총효과(Effect=.82, 95% CI[.71, .94])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직접효과(Effect=.14, 95% CI[.02, .26])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에서 영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42, 95% CI[.33, .52])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에서 영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42, 95% CI[.33, .52])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23, 95% CI[.14, .33])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23, 95% CI[.14, .33])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04, 95% CI[.01, .07])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은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를 다중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점점 급속한 교인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데 있다. 전국의 성인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이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건용, 2013 ; 김남규, 2019 ; 김사엽, 2016 ; 선유진·이숙경,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연구는 직장이거나 스포츠의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만족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의 생각과 의도와 삶을 존중하고, 가치관의 관점을 변화시키며 신앙과 삶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돕고 교인들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신뢰를 해 줄 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할 의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과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김문선·황혜정, 2023 ; 이정아,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영성이 좋아지며, 영성은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을 통해 교인들은 실제적인 신앙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지속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 지도자의 높은 코칭리더십 수준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족감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을 통해 교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은 다중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인들의 영성이 좋아지며, 교인들의 영성이 좋아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의도를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

제하며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아진다. 특히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교인들이 영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스스로 영적경험과 변화와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므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주저함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연구 영역에서 지속의도는 중요한 주제였으나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교인수 감소에 대한 보고들을 보면 환경적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요인을 개인의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교회의 연구들을 보면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코칭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코칭리더십과 영성, 신앙생활 만족,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점점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 현장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향상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교회 지도자를 양성할 때 코칭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영성의 수준을 높이는 예배, 교육과 체험을 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 지도자는 코칭리더십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고 교인들은 스스로 영성 향상의 변화와 성장의 시도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의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만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코칭리더십, 만족, 지속의도)들은 다른 연구 영역들에 사용된 척도들이며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교회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에 대한 조사는 실제 교회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인식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인식과 교인들이 느끼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소속이 서로 다른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음 연구에서 한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해당 교회의 리더십, 영성, 만족, 지속의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통대로 교회의 변화 성장 방향을 더 자세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영길·고순자 (2012). 기혼 여성의 기독교 신앙 활동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가족의 신앙 일치도와 신앙활동 지지도의 영향. **인권복지연구**, 12, 23-39.
- 권혁남 (2012).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29-72.
- 김남규 (2019). **변혁적 리더십과 동료의 도움행동이 지속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도연 (2022). **필라테스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만족이 심리적 웰빙지각 및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문선·황혜정 (2023).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지능과 집단응집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 16(1), 35-68.
- 김사엽 (2016).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운동몰입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99-308.
- 김영학 (2022). 장애인 차별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 연구: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141-160
- 김정두 (2017). **교인이 지각한 담임목사의 의사소통유형과 교회생활 적응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진경 (2012). **필라테스 참여 여성의 여가만족과 지속의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찬목 (2014). 크리스천들의 영적성장에 대한 신앙생활 양태와 목회자의 영향 분석. **로고스경영연구**, 12(2), 183-204.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한나 (2013). **기독교인 대학 신입생의 영성이 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나선영 (2017). **셀프네일 소비자의 소비동기, 자기효능감, 관여도, 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남정훈 (2016). 스포츠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코칭능력개발지**, 18(2), 95-106.
- 도미향·박용권·최성남 (2022). 중간관리자의 코칭역량 척도 타당화 연구. **코칭연구**, 15(3), 101-126.
- 박수진 (2014). **성인학습자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박준성·박은미·정태연 (2009). 종교성이 일반적 신뢰,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55, 159-190.

- 박철용·송영수 (2023). 코칭리더십이 경력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리더의 겸손과 주도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30(3), 21-44.
- 서정하 (2007). 종교 조직에서의 리더십과 조직 몰입: 한국 개신교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 273-306.
- 선유진·이숙경 (2019). 전북태권도장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수업몰입, 교육만족,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3(1), 117-143.
- 송영진 (2012). **코칭리더십의 한국교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신건용 (2019). **외식산업 종사자가 지각한 공유리더십이 지속근무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팀 신뢰 매개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안재균 (2022). **영성과 정신건강 및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양교 (2023). **임파워링 리더십이 일터영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양명환 (2004).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97-215.
- 오혜정·임희수 (2022). 코로나 19 상황 속 기독교 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신앙생활 점검. **기독교교육정보**, 73, 101-154.
- 유해룡 (1999). **하나님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윤혜영·김근향 (2015).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타당화. **한국융합학회**, 6(5), 257-274.
- 이은기 (2008). **중소기업 CEO의 리더십 유형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이정아 (2015). **영성리더십이 부하의 일터영성을 통해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종석·정득 (2018). 종교성과 교회생활이 교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리교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8(1), 71-100.
- 이창준·윤정구 (2007). 정서와 리더십에 대한 한 이론적 모형의 검증: 카리스마적 및 감성적 리더십, 집단정서, 집단효과성. **인사·조직연구**, 15(3), 1-51.
- 임명성 (2021). 조절초점이 미래 불안감, 직장 내 종교활동,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4), 73-100.
- 임은정·탁진국(2023). 코칭리더십과 경력정체가 20~30대 직장인의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1(2), 261-275.

- 장경철 역 (1994).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Daniel L. M. (1991).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장미애 (2022). **영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춘천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장위 (2020). **넷플릭스(Netflix)의 서비스 특성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전성표 (2011). 종교와 삶의 만족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및 무종교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한국종교사회학회**, 4, 9-38.
- 정진오·변상해·김중수(2009).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65-288.
- 정현우·서정기·류태모(2014). 사회적기업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일터영성의 매개효과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5), 35-54.
- 조성호 (2012a). 리더십에 대한 실천 신학적 제언. **신학과 실천**, 30, 67-98.
- 조성호 (2012b). 기독교 리더십과 영성의 상관관계. **신학논단**, 70, 259-297.
- 조성호 (2023). ‘나노사회’ 파편화를 극복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 85-114.
- 조은현·탁진국 (2011).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155.
- 한석빈·탁진국 (2023). 목회자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기독교 철학**, 36, 291-332.
- 한진우 (2018).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함영주·이현철 (2021).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66, 209-241.
-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3), 351-370.
- Couraeya, K. S. & McAuley, E. (1993).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from Inten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 50-62.
- Fetzer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 (1999).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Kalamazoo, MI: Fetzer Institute.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Wilson, P. M. & Rodgers, W.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exercis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wome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3), 229-242.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 통계 분석.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18(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a).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결과.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page=3(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b). 3040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6&page=2(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 및 의식 조사.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page=1(검색일 2023.10.1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김정진 (광운대학교)

하규영 (광운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이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을 통해 신앙생활 지속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 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영성, 신앙생활 만족,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의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지도자의 코칭 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며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발견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의 변화 방향을 코칭리더십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신앙생활, 지속의도, 만족, 영성, 코칭리더십